

2018 확장Ⅲ.

비전이 사명으로 새겨져야 포기하지 않는다.

1. 창조와 정체성 그리고 역할

창조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정체성은 '역할'을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역할은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된다. 역할은 하나님의 전체 창조 안에서 나 혼자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전체 퍼즐이 중요하지만 하나의 퍼즐이 없으면 전체 퍼즐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 창조 안에서 퍼즐 하나로서의 나의 역할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창세기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에 대한 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역할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겠는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에 관한 것이다. 창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만드는 일이다. 아무리 위대한 문명도 인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빈 건물이며, 껍데기일 뿐이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던 에덴동산도 그 동산을 다스리는 인간이 없다면, 동산이 아니라 정글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역할의 발견은 중요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가치는 존귀하다. 어떤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창조의 영성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은 이미 세상의 가치로 만든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세상이 만든 가치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실제적 틀이 '세계관'으로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안에 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부딪히는 영역은 구체적으로 '세계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관이란 성경적 세계관을 말한다. 하나님이 원 모양대로 지으신 세상에 대한 바른 정의를 말한다.

2. 사명과 역할

하나님의 꿈인 비전이 임할 때 '사명'으로 새겨지는 일이 중요하다. 비전이 사명이 될 때 꿈만 커다란 비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땅에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실제적 확장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사명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내 역할'을 알게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다. 비전을 들은 사람, 꿈꾸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 비전을 이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군대로 말하면 장교급이다.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이다

3. 비전이 사명으로 오지 않기에, 역할이 아니라 기능에 집중한다.

아버지가 되는 순간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런 것처럼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그 후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된다. 아버지의 역할은 분명 싱글청년과 다르다. 아버지라는 정체성에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을 돌보는 일 등, 아버지의 구체적인 역할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할과 기능을 혼돈한다.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수행되어지는 능력이 '기능'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돌보고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역할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정지되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정체성으로 그 역할을 기능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망할 필요가 없다. 좌절할 필요도 없다.

4. 역할의 중요성

역할이란 전체 안에서 나의 존재감에 대한 존귀함을 아는 것이다. 각 손가락의 기능이 있지만 손가락의 역할을 손 전체에서 깨닫게 되면, 한 손가락 부러졌다고 낙망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가 손 전체, 몸 전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이 확장이며, 성숙함이며, 역할이다.

내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교회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안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정의한다면,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보이는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으로 주어진다. 이제 한국 교회는 새로운 정체성 위에서 사명감으로 일어나야 한다. 주님은 세상속의 교회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체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사로서, 교회, 직분자의 기능이 아니라 역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이다. '자기'에 갇혀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신앙은 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신앙의 역동성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역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존재적 신앙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그래서 창세기 1:28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체성의 원리는 존재적 기쁨이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아버지의 기쁨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5.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창조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You were designed in joy"). 존재적 기쁨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역할의 소중함을 알게된다.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돌파는 모든 행위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존재적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이 만든 소유적 기쁨과 결이 다른 삶을 산다.

- * **소유적 기쁨** : 기쁘데 영원하지 않다. 소유가 떨어지면 기쁨도 줄어든다
- * **존재적 기쁨** : 영원하다. 소유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다. 소유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를 안다.
'내 것이 다 네 것' 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6.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 역할을 발견

복음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반응은 '기쁨'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진짜 기뻐한 것이고, 그 순간이 소유적 인간에서 존재적 인간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삭개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유일하게 아는 존재를 처음 만난 것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영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그 바쁘신 분이 하루 시간을 내어 삭개오를 만났다는 것은, 삭개오의 존재를 향한 예수님의 존중함이었다.

존중함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된 삭개오는 자기의 연약함을 증명해오던 재정의 소유로부터 자유해진다. 자발적인 기쁨이 결국 삭개오를 자유롭게 했다. 그 결과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소유를 나누어주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은 언제나 사람들안에 기쁨과 감격을 선물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7. 마음에 부여되는 계시

그러나 율법은 다르다. 율법의 상태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거나 부여된 상태가 아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기름칠이 없다. 결국 뻘뻘해져서 마찰이 일어나고 파손된 상태가 바로 바울의 상태였다. 바울이 성도들을 죽이러 다니는 죽음의 영에 휩싸인 순간은, 이미 살인자의 영으로 변해버린 자기제어를 상실한 바울의 모습이다.

머리로 알면 '기능'에 집중한다. 계시와 마음으로 알면 '역할'에 집중한다. 기능은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역할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계시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머리로만 깨닫게되면 기능에 집중한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마음으로 깨닫게되면 역할, 즉 존재에 머문다. 역할은 사명감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마땅히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온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기쁨으로 그 영역을 자발적으로 담당한다

이 사람은 힘들어도 웃는다. 가족을 돌보며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기쁜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며 기쁨이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무감이 된다. 말씀이 율법이 된다. 부담인 것이고 그 결과 가족에게 상처의 토로를 하게된다 (너희 때문에 힘들다, 이 환경이 너무 힘들다, 내 인생 희생만 했다). 불평으로 자기 신세한탄을 한다.

기억하라. '기쁨'으로 창조된 존재가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8. 신앙의 역동성 (다이나믹을 회복하라)

자기를 넘어 확장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자. 이런 신앙의 역동성은 꺼지지 않는다.

9. 선교하는 미션 베이스!! 기쁨이 있는 교회!!